

# 한국작물학회

## 작물관련 연구·보급으로 농학발전에 기여

### 초대회장에 지영린박사

<연혁> 한국작물학회는 1962년 10월 7일 수원의 서울대 농대에서 80여명의 작물연구인들의 뜻을 모아 창립되었다. 그러나 실제 작물학회의 모체(母體)는 한국농학회로서 그보다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6.25의 전란이 채 가시기 전인 54년 10월에 농학의 분야를 총망라하여 한국농학회가 발족되었고 초대회장으로 당시 서울대학교 농대학장이었던 조백현박사가 피선되었다. 한국농학회는 55년부터 매년 1회 학회를 개최하였고 8권의 학회지를 출간하였던 바 게재되었던 논문 중에는 작물관계 연구논문들이 단연 많았다. 동 학회에서 경비의 조달이 용이하였던 분야별로 독립하여 새로운 학회들이 발족해 나갔는데 56년에 축산학회, 57년에 농공학회, 수의학회, 잠사학회, 58년에 농경제학회, 60년에 임학회, 농화학회가 분리해 나왔다. 그 결과 한국농학회에는 원예분야를 포함하여 작물학 회원들만 남게 되었고 62년 10월 한국농학회가 개칭되던 날 한국작물학회 창립총회를 갖고 새로운 전문학회로서 발족하게 된 것이다.

초대회회장으로 당시 서울대 농대교수

였던 지영린박사를 추대하였고 작물학회 발족에 산파역을 맡았던 서울대 농대 이은용교수가 총무직을 맡아 다년간 학회 살림을 도맡았다. 63년 2월23일 서울대 농대에서 1백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고 그해 12월에 학술논문 6편을 실은 48면의 창간호를 내었다. 그후 68년까지는 1년에 1회의 정기총회와 학술발표회를 갖다가 69년부터는 봄 가을 두 번씩 연 2회 개최하였다. 당시는 식량부족으로 해마다 보릿고개의 참상을 겪어 식량증산이 국가의 지상과제였으나 식량

증산의 주역을 담당한 본학회마저도 경제적 보조를 받을 길이 없어 학회지 3호를 겨우 내고 부채 때문에 3년간을 정간해야 했다. 제4호 학회지는 68년 1월에 간신히 발간하였고 69년에 3권, 70년에 1권, 71년에 3권, 72년에 2권 등 불규칙적인 학회지 발간이 이어졌다.

당시의 학회 운영을 맡은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절감하였고, 정상적인 학회 활동을 위하여는 학회기금 확보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기금모금에 동분서주하였으나 일부 곡물관련협회에서 냉대를 받는 등 그 서러움이 허다하였다.



◇ 한국작물학회는 지난 92년 9월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아시아작물연합회 국제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은 축하연장면.

창립 10주년인 74년에는 「식량증산 기술의 현황과 장래」란 주제하에 기념심포지엄을 가졌고 그후 1년에 3권씩 학회지를 발간해오다가 79년부터는 4권씩, 87년부터는 5권, 90년부터 연 6권씩을 발간해 오고 있다. 그동안 10번의 크고 작은 심포지엄을 가졌는데 그중 20주년기념심포지엄으로 「농작물의 기상재해와 대책」을 개최하였다. 92년 9월에는 창립 30주년기념으로 본학회가 주도하여 결성한 「아시아작물협회」 발족을 겸하여 대규모 국제심포지엄을 서울 잠실의 올림픽파크호텔에서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9개국에서 총 1백40여명이 참석하였고 국내에서 7백여명이 참석하여 「Low-Input Sustainable Crop Production Systems in Asia」를 주제로 각국 대표의 발표와 각 분과별로 3일에 걸쳐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본 학회는 40여년 이상 농학연구에 종사하여온 원로회원만도 50여분이나 되며 아직도 꾸준히 학회활동에 참여한다. 이들은 우리나라 현대 농업을 가꾸어 온 교육, 기술, 산업계의 원로들이다. 본학회를 이끌어 온 학회장들로는 고(故)지영린(초대), 박승만, 최범열, 장영철, 최현욱, 조재영, 박찬호, 이은용, 손응용, 허문회, 박래경, 황종규, 이홍석씨이며 이들 대부분이 건재한 것도 작물학회의 자랑이다. 또 대학원생 등 젊은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도 있어 본 학회는 원로선배와 신진학회원 사이에 화기애애하며 돈독한 관계가 매우 잘 유지되는 대표적인 학회라 할 수 있다.

## 사업의 성장

〈목적 및 사업〉 우리나라 농업의 기간

(基幹)은 작물생산이라 할 수 있다. 반만년 역사를 지니온 한민족은 농경을 기본산업으로 먹거리를 마련하였고 농촌문화를 꽃피워 왔다. 그중 쌀농사는 삼국 이전부터 한반도에 선진기술로 발달하였고 우리 역사상 모든 군주들은 농사가 잘되길 하늘에 빌었고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으로 숭상하였다. 우리민족의 오랜 농경경험을 전수받고 현대의 관련학문의 지원을 받아 해외 농업기술과 상호 교류하는 것이 작물학회의 일이다. 본학회 회칙 2조에는 「작물 등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며 그 지식을 널리 보급시켜 한국농업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1) 학술활동 : 회원들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회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서로의 연구경험과 정보를 교류한다. 본학회는 해마다 봄과 가을, 두번에 걸쳐 학술발표회를 갖고 각자 그간의 연구들을 공개 발표하고 회원간의 질의와 조언을 받는다. 해마다 봄 학회는 회원들이 소속된 전국의 농과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순회하여 개최한다. 또 봄 학회에는 정기총회를 개최하는데 학회의 사업경과를 보고받고 업무계획을 승인하며,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2년에 한번씩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을 선임한다. 반면 가을 학회는 학회의 본부인 서울대 농생대에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관례화되어 있다. 회장단 회의, 상임이사회를 수시로 소집, 학회의 업무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일들을 논의, 집행한다.

2) 학회지 발간. : 학회지 발간은 출판담당회사가 자주 바뀌고 편집예산이 빈약하여 논문의 전문성이 손상되기도 하고, 편집담당자들의 시간적 손실과 노고

가 많다. 논문집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려는 회원들의 욕망은 학회 운영의 영세성 때문에 좌절을 거듭하고 있지만 점진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정기적 학술지 발간 이외에 분과활동 연구보고서, 특별심포지엄 발간, 학술발표회 프로시딩(Proceeding)도 수시로 발간된다.

3) 연구분과위원회 활동 : 작물의 품질 연구, 기상으로 인한 작물재해방지, 식물생장조절제 연구 등은 최근 본학회의 분과활동으로 벌어진 주제들이다. 먼저 관심회원들이 모여 집담회를 거듭하여 해당분야의 연구상황과 문제해결을 논의하고 필요시에는 워크숍을 열어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필요한 분석기법을 익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학회에서는 소액의 활동지원비 지원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조직적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하겠다.

4) 특별사업 : 사회적 요구나 회원들의 희망에 따라 국내의 인사들을 초빙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또 특별한 전문기관을 방문, 기술지원을 하고 기술연수, 정책자문과 평가에 응하고 있다. 93년부터 2년간 계획으로 작물학관계용어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리해 영어, 일어, 학명을 포함하여 열거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5) 기타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나 한국농업과학협회가 주관하는 학술회와 심포지엄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학술활동을 한다. 아울러 학회내에 우수논문상, 공로상 등 포상제도를 실시하여 회원 학술활동을 독려하고 국제학술분과를 두어 해외학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우리 학회회원들의 대표적 업적이라면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주곡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 합심 노력하여 70년대 말에 쌀의 자급을 이루어낸 점이라 하겠

다. 이것은 쌀의 새품종 통일벼의 육종과 적합한 재배법 개발연구의 결실이다.

### 학회사무실 개설 아쉬워

〈현황〉 최근 한국농업은 전기(轉機)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이래 쌀, 보리, 콩, 감자, 고구마, 참깨 등 곡식들을 우리 농토에서 생산된 것만 먹어야 했던 과거에 비하여 앞으로는 필요한 농산물을 얼마든지 해외에서 도입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농업만이 우리민족을 먹여 살린다는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현재 주요 곡식의 자급률을 보면 쌀만은 1백% 국내생산으로 자급하고 있지만 보리는 약 60%, 콩은 15%, 그밖의 밀, 옥수수는 거의 전량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식을 제외하고는 혼식(混食)이나 분식(粉食), 과자류, 식품가공용, 가축 사육에 필요한 사료곡물을 거의 대부분 수입하고 있음을 뜻한다. 우리 학회회원들의 학회 발표논문들은 벼 등 주요작물의 고품질 품종 육종, 재래 야생벼 품종의 수집과 특성 규명, 다수 생력(多收省力)재배방법 개발, 인삼, 당귀 등 약용작물의 재배법 개선이 많고 새로운 생물공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유전성의 규명, 화분 또는 조직을 이용한 배양, 잡초의 생태를 밝히고 제초법의 개발, 조선조의 농업에 대한 기술사 연구 등이 있다. 나아가 최근 지속성 농법 확립을 위한 연구들이 상당히 이루어져 환경을 보전하는 영농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새로운 농업환경에 적응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는 고품질 농작물 생산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 학회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기준 (건국대) ▲부회장: 심재욱(서울대), 홍병희(고려대), 이정일(작물시

험장), 강광희(영남대), 김용재(전남대), 박상일(충북대), 박양문(제주대), 이용득(한국인삼연초연구원), 한경수(경상대) ▲감사: 권용용(서울대) 오윤진(작물시험장)

현재 본 학회는 정규회원수가 1천명에 달하고 그중 이사 이상이 5백여명이나 된다. 학회의 모든 업무는 보조원 한사람 고용하는 일 없이 회원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일관되어 오고 있다. 최근 각종 학술관련단체들의 업무 협조요청이 폭주하여 비상임 학회사무담당자로서는 과도한 시간소요와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다. 방대해진 학회 업무나 학회지 편집과 교정에는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재정상태로서는 학회사무실의 확보는 엄두도 못내고 대학교수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의 도움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있다.

### 학술회의 공동개최 모색

〈인접학문과 연관성〉 작물학회는 인간이 기르는 1백여가지나 되는 작물들을 대상으로 인간의 주식이 되는 식량작물,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는 사료작물, 섬유, 기름, 당분, 기호성작물을 포함하고 가공원료가 되는 공예작물로 대별하여 그들의 유전, 육종, 생리, 생태, 생산기술, 품질을 연구하고 가공이용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 경제식물들의 유전, 생리, 생태의 지식은 식물학 연구에서, 재배 생산의 기초는 토양학과 비료학, 영양학, 대기 기상환경의 지식이 또한 요구된다. 본 학회는 농업 관련 기초응용분야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한국육종학회, 한국잡초학회, 한국식물학회, 한국토양비료학회, 한국약용작물학회, 한국인삼연초학회, 한국초지학회 등과 회원을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는 학술발표회를 인접 학회들

과 공동개최할 필요성이 크고 학회간 상호 협조를 얻어 실시하려 한다.

### 원로와의 집담회 등 추진

〈학회의 장래 계획〉 본 학회는 앞으로의 한국농업 변혁에 대처하고 기여할 수 있는 구심적 단체로서 학술적 기초연구와 기술적인 개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각 회원들의 학술연구활동을 촉진하고 학회의 소규모 연구활동을 진작시켜 주제별 공동연구, 종합화 실용화작업을 시도해야 한다. 또 작물학분야 후속 연구인력 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고등교육기관과 사회에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 학회지 논문의 질적 향상을 꾀하려면 신진연구자들에게 연구시행방법과 논문작성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게재논문 선정에서도 수차에 걸친 철저한 심사 활동이 요망된다.

기존 발표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해외 주요 기술정보들을 확보하여 필요한 회원들에게 전산통신망을 통한 공급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요청된다. 외국의 작물학회들과의 교류를 확충하고 본 학회 회원들의 노력으로 창설시킨 아시아작물학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할 것이다. 학회가 커지고 구성원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점차 회원간에 교류가 소원해지는 감이 있다. 특히 2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다양한 세대들 간에 이해를 돕고 학술전수를 원활하게 하려면 보다 많은 접촉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 한 방법으로 학회개최일자를 연장하여 학술발표이외에 회원간 관심사항에 대하여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집담회, 유관기관의 방문 등의 계획을 마련, 회원들간의 친목을 돈독히 할 기회를 보다 많게 하려한다.